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9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사보전문업체 좁아지는 입지에 고민

기업체들이 애사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앞다퉈 사보 제작에 참여하면서 사보전문 기획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1994년 9월 16일자 인쇄신문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주를 주지 않고 사내 홍보팀에서 제작함에 따라 조판업체를 비롯한 사보전문업체들이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쇄신문은 외주 의존도를 점차 축소하고 그 업무를 기업내 전문인력이 담당토록 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형 기업 이미지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기업체에 고급 SW의 편집기능이 도입되면서 홍보실에서 사보편집까지 흡수하게 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인쇄신문은 이 같은 추세로 전산조판 업체와 기획사들이 점차 일감을 잃어감에 따라 경영악화가 심화돼 업종전환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인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돼야

인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3년 9월 10일자 인쇄신문은 문화체육부가 입법예고한 문화예술진흥법개정법률(안)의 '문화예술' 범위에 인쇄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출했다고 전했다. 당시 법률개정(안)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문화예술' 이라함은 문학·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인협은 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의 범위에 인쇄부문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인쇄는 출판과는 특성과 그 영역이 분명

하게 다른 독립된 분야이며 둘째, 우리나라의 인쇄문화는 금속활자 발명의 전통을 지닌 대표적인 민족문화의 토대라고 할 수 있으며 셋째,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쇄문화를 향상시키고 인쇄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률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공고인쇄과 졸업생 대학진학 시 특혜주기로

1977년 9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서울공고인쇄공업과 졸업생의 대학진학 특혜 소식을 보도했다. 시보는 서울공고인쇄공업과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코자 할 때에는 공업계열의 화공분야 해당학과에 특혜를 받아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1년 전인 1976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입학예비고사 시행공고에 의해 실업계 고교생들이 대입예비고사와 본고사에서 진학특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문교부가 1977년 8월 27일 대학입학예비고사 일반계열이외의 계열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과 지정에 관한 규칙중개정령(문교부령 제412호)' 을 공고, 인쇄공업과 졸업생이 대학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계열의 화공분야학과에 지원, 실업계고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보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공고에 인쇄과가 있을 뿐, 대학과정에 인쇄과가 없기 때문에 유능한 인쇄기술자를 양성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선진인쇄기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인쇄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개정령에 따라 공업계열 고등학교의 인쇄공업과, 화학공업과, 식품공업과, 방직과, 염직과, 제직과 졸업생이 특혜를 받아 진학할 수 있는 학과는 화학공업과, 응용화학과, 화학기계공학과, 공업화학과, 고분자공학과 등이었다.



● 캘린더업계 고전 예상

경기침체의 여파로 상당수 캘린더 제작 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974년 9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30여개의 기존 캘린더업체들이 약7백만부로 추산되는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는 가운데 4~5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영세기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5~6개의 업체가 도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시보는 해마다 제철이 되면 약2백여종의 캘린더가 선보였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캘린더의 종류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가격은 제반여건상 인상폭이 30% 이상이 되어야 채산이 맞겠지만 10%정도 인상된 선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용지값 상승에 대해서도 시보는 현재 주춤하고 있는 용지값이 성수기가 되면 뛰어오를 전망이 짙어 업계 앞길이 밝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년 업계가 겪어야 했던 모델 확보의 어려움이 덜 할 것이라는 점. 시보는 내세울만한 정상급의 여배우가 없기 때문에 각사가 TV 탤런트나 A급 여배우들을 골고루 등장시키고 있어 그런대로 무난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시보는 그동안 과제로 남아있던 캘린더 공판제는 금년에도 업체끼리의 얽힌 이해관계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실시되기 힘들 것이라며, 영업사원들의 횡포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고시가 너무 비싸

1992년 9월 11일자 인쇄신문은 일산 출판물 종합유통센터(현 출판단지) 건립부지 고시가가 347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감정되

면서 적기건설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일산 출판문화단지협동조합측은 이 같은 토지개발공사의 감정가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출판물종합유통센터는 '92유통산업근대화시행계획'에 의해 당초 평당 125만원으로 제시됐었다. 협동조합측은 연초 평촌의 농수산물유통센터가 120만원에 공급됐음을 주장하며, 출판물 종합유통센터가 적기에 건설돼 신도시 기능활성화 등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의 재감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보는 토지개발공사가 고시한 평당 347만원(도로포함 평당 440만원)은 일반업무지역(평당 450만원)의 고시가와 맞먹는 감정으로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서울시스템의 '페이지 프로' 소개돼

1999년 9월 11일자 인쇄신문은 서울시스템(주)가 미국 아일랜드 그래픽스사의 워크스테이션용 DTP시스템인 '아일랜드 WDP 3.0'의 한글화에 성공, 국내 독점판매에 나섰다 보도하면서 이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한글 아일랜드 WDP는 워드프로세싱 기능 및 페이지 편집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라이트' 그래픽·차트와 다양한 컬러를 제공하는 '드로', 원하는 그림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페인트'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들 프로그램은 '라이트'를 중심으로 상호결합돼 통합사용되며 이미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을 갖고 있어 사용폭이 크다고 인쇄신문은 설명했다. 인쇄신문은 서울시스템에 대해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DTP프로그램인 '페이지프로'도 자체개발, 전자출판의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업체라고 소개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